김수영문학상 수상 시인 배출한 GIST, 과학기술원의 특별한 인문사회 교육 비결

- 김수영문학상 수상한 GIST 졸업생 송혜근 시인... 공학·수학 공부하며 시 창작 이어가
- SF 작가 이산화, 추리소설 작가 배연우 등 과학기술과 문학 넘나드는 창작자 주목
- 사회사상·철학·문학 교육부터 문예창작 동아리까지... 과학기술 학업과 함께 인문사회적 소양 키워



▲ 제45회 김수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송혜근 시인.

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서 **한국 현대시단의 주요 문학상** 수상자가 나왔다. 정희성, 이성복, 황지우, 김혜순 등 **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이 거쳐 간 '김수영문학상'의 제45회 수상자로 광주과학기술원**(GIST·지스트) **졸업생 송혜근 시인**(25)**이 선정**됐다.

송 시인뿐 아니라 GIST에서는 **SF 작가 이산화**(화학과 학사 및 석사), **추리소설 작가 배연우**(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) 등 과학기술과 문학을 넘나드는 창작자들이 배출되고 있다.

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쌓는 동시에 문학과 예술, 사회에 대한 관심도 자유롭게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GIST의 학풍이 이들의 재능을 꽃피우는 토대가 되고 있다.

송혜근 시인은 **2020년 GIST 신소재공학부에 입학한 뒤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로 전공을 변경하고 수학을 부전공**했다. 대한수학회가 주관하는 **전국대학생수학경시대회**

에서 두 차례 은상을 수상할 만큼 수학에 대한 관심도 깊었다. 문학 창작은 어릴 때부터 이어 온 관심사였다.

대학 입학 첫해인 2020년 2학기에는 **교내 문예창작 동아리 '사각사각'에 가입**했다. 송 시인은 **"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들쑥날쑥하던 창작 활동에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"고 회고**했다.

2022년에는 제3회 GIST 문학상 시 부문 가작을 받았으며, 2023년에는 독립출판으로 시집을 펴냈다. 올해 제45회 김수영문학상 수상작으로는 「**초희의 구체시학**」 **외 55편이 선정**됐다.

GIST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함께 탐구하며 **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도록 교육**하고 있다.

학사과정의 인문사회 교과목은 ▲문학·역사·철학 ▲철학·정치·경제 ▲일반선택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며, 학생들은 **졸업을 위해 인문사회 교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**해야 한다. 특정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**▲문학과 역사 ▲공공정책 ▲경제·경영 ▲과학기술과 사회 ▲마음과 행동 등 5개 분야의 인문사회 부전공도 운영**하고 있다.

송혜근 시인이 GIST 재학 중 인상 깊었던 수업으로 꼽은 과목 중 하나는 **'현대사회사상의 흐름**(Lives and Thoughts of the Great Thinkers)'이다. 박명규 전 GIST 초빙석학교수(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)가 강의한 이 과목은 콩트, 마르크스, 뒤르켐, 베버 등 주요 사회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, 이들의 생각을 오늘날의 사회 및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도록 구성됐다. 송 시인은 이 수업을 통해 **"현대사회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"**고 말했다.

GIST의 인문사회 교육은 강의실 밖에서도 이어진다.

송혜근 시인이 활동한 문예창작 동아리 '사각사각'은 **매주 한 차례 각자 창작한 작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합평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**. **학기마다 세 차례 주제별 작품을 완성**하며, 창작물은 인스타그램에 공유한다. 매년 도서관 전시회와 연말 작품집 발간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인다.

2016년 결성된 **'사각사각'은 올해 창립 10주년**을 맞았다. **이수정 입학학생처장**(인문사회과학부 교수·국문학)은 동아리 창립 때부터 지도교수를 맡아 왔으며, 시 창작 수업 등을 통해 **송혜근 시인의 학부 시절 창작 활동을 지켜봐 왔다.**

이 처장은 "송혜근 시인은 **수과학의 언어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언어 실험**

을 통해 **'시란 무엇인가'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**해 왔다"며 "특히 **언어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인의 윤리적 책임에 깊은 관심**을 가졌던 것이 기억난다. **언어가 조금 더 섬세해진다면 덜 폭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**했다"고 말했다. 이어 "앞으로의 작품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"고 덧붙였다.



▲ 송혜근 시인이 학부 시절 활동한 GIST 문예창작 동아리 '사각사각'의 2026년 전시회 작품집 「날개」.

임기철 총장은 "인문사회 교육은 **학생들이 익숙한 전공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,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과정**"이라고 말했다.

이어 "문학과 예술,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경험은 **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밑거름**이 된다"며 "GIST는 학생들이 **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자유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다양한 비교과 창작 활동도 적극 지원**할 것"이라고 밝혔다.